

찰스 레니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사례와 특성

Examples and Characteristics of Charles Rennie Mackintosh's Chair Design

김진우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Kim, Jinwoo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Konkuk University

* 이 논문은 2008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서론

- 1.1. 목적과 의의
- 1.2. 범위와 방법

2. 맥킨토시의 생애와 작품세계

- 2.1. 1기: 활동의 초기 (1891-1900)
- 2.2. 2기: 전성기 (1900-1906)
- 2.3. 3기: 위기의 시기 (1906-1914)
- 2.4. 4기: 부르주아에서 보헤미안으로 (1914-1923)

3.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시대별 사례

- 3.1. 1기 (1891-1900)
- 3.2. 2기 (1900-1906)
- 3.3. 3기 (1906-1914)
- 3.4. 4기 (1914-1923)

4. 결론: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특성

5.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찰스 레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1868-1928)가 평생에 걸쳐 디자인 한 가구 중에서 의자 디자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오늘날 분야와 역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롭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개념이 확장되는 가운데 종합예술가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맥킨토시의 생과 작품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현재까지 양산되고 있는 소수의 가구작품을 포함해서 도면과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그의 가구 중 의자류를 취합한 후 시기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추후 이어질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알란 크로포드(Alan Crawford)가 그의 저서 <찰스 레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에서 사용한 분류에 따라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의자(chair 혹은 armchair)류를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서술한 후 의자 27개의 특징을 조형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도출했다. 조형적으로는 기하학적인 조형과 유기적인 장식이 공존했으며,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했고 양산성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그 한계를 넘어섰다. 기능적으로는 공간을 분리하고 통제하는 실내디자인의 요소로, 앉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기능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건축가로서의 성공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예술가로서 인식되길 바랐으며 이러한 철학은 당시 범람하던 조악한 양산가구들 사이에서 균계일학 과도 같은 가구조형의 탄생으로 실현됐다.

주제어

찰스 레니 맥킨토시, 의자디자인, 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and analyze the chair designs created by Charles Rennie Mackintosh (1868-1928). Today many are revisiting the blurring boundaries between the role of the architect, designer and artist. As a result, it will be meaningful to analyze the work of Mackintosh who pursued all of these disciplines throughout his life. In particular, Mackintosh's chair designs have not been examined as much as his architectural works have been critiqued, and in addition other architects furniture design has been analyzed much more.

This study has chosen 27 chairs out of 400 furniture pieces and has classified them into 4 periods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s noted in the book "Charles Rennie Mackintosh" by Alan Crawford.

The characteristics of Mackintosh chairs include: 1) Form: appropriately harmonized geometrical form and organic elements. 2) Structure: not strong enough and had problems in mass production because of long and complicated patterned back design. However, current manufacturing technology has overcome these problems. 3) Function: chairs were performing multiple functions as room dividers, partitions, and even sculptures. He created the furniture not only to sit on, but also as a symbolic, and/or useful element.

In addition to his success as an architect, he wanted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 While others were mass producing plain, functional furniture, Mackintosh realized the furniture could have form, structure, function and be a piece of art.

Keyword

Charles Rennie Mackintosh, Chair Design, Characteristics

1. 서론

1.1.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건축가 찰스 레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1868-1928)가 평생에 걸쳐 디자인 한 가구 중에서 의자 디자인의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맥킨토시는 19세기 후반 푸진(A.W.N. Pugin), 러스킨(John Ruskin), 모리스(William Morris)로 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유럽의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과 일본의 기하학적 조형 요소를 접목하여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다. 맥킨토시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아르데코(Art Deco), 아르누보, 세션(Seession) 등 다양한 사조를 통합적으로 아울렀던 선두적인 디자이너였으며 이미 한 세기 이전에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작품의 질을 언급하고 실천했던 종합 예술가였다. 동시대의 거장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가 1910년도에 접어들 때까지 스스로의 스타일을 찾지 못한 것에 비교하면 시대적으로도 현저히 앞섰다고 할 수 있다(황보봉, 2002). 라이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그의 건축 및 실내디자인 프로젝트와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맥킨토시에 대한 연구는 미약했다고 본다.

오늘날 분야와 역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들의 탈역영적 역할이나, 가구와 조각품을 정의하는 경계에 대한 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건축가, 화가, 예술가 등의 역할을 넘나들며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맥킨토시의 생과 작품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현재까지 양산되고 있는 소수의 가구작품을 포함해서 도면과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그의 가구 중 의자류만(chair 혹은 armchair)을 취합한 후 시기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추후 이어질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1.2. 범위와 방법

알란 크로포드(Alan Crawford)¹⁾는 그의 저서 <찰스 레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²⁾에서 맥킨토시의 생애와 작품을 크게 6개로 분류했다. 즉,

1) 건축사와 미술공예사에 대한 글을 주로 집필하는 자유기고가이자 컨설턴트로서 <Charles Rennie Mackintosh>를 포함하여 <The Art and Craft Movement in Birmingham>, <Architect, Designer and Romantic Socialist>등을 집필했다.
2) Thames & Hudson, 2002년

1868년부터 1891년까지 글라스고우(Glasgow)에서의 성장기는 1기, 1891년부터 1902년까지 건축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시기는 2기, 부인 마가레트(Margaret MacDonald Mackintosh, 1865 - 10-1933)와의 협업으로 실질적인 전성기를 구가했던 1900년에서 1906년까지는 3기, 건축가,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에 어려움을 겪었던 1906년부터 1914년까지는 4기, 런던으로 이주하여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았던 1914년부터 1923년까지는 5기, 프랑스 남부로 이주해 화가로 전향했던 1914년부터 1933년까지는 6기이다.

맥킨토시 첫 번째 의자 작품은 1896년(2기) 글라스고우 학교(Glasgow School of Art) 디렉터 룸(Director Room)을 위한 의자였으며³⁾ 마지막 의자는 1918년(5기) 바세트-로크 주택을 위한 D.S. 3 체어(D.S. 3 Chair, 1918)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크로포드 분류기준의 1기와 6기를 제외한 2기에서부터 5기까지의 시기만을 다시 1기부터 4기까지로 명명하여 연구했다[표 1].

[표 1] 크로포드의 분류 및 연구자의 분류

크로포드의 분류		연구자의 분류
연도	특징	
1기: 1868-1891	글라스고우에서의 성장기	연구범위에서 제외
2기: 1891-1900	활동의 초기	1기
3기: 1900-1906	전성기	2기
4기: 1906-1914	위기의 시기	3기
5기: 1914-1923	부르주아에서 보헤미안으로	4기
6기: 1923-1933	화가로서의 삶	연구범위에서 제외

맥킨토시는 그가 활동했던 약 30년 동안 쉐틀(settle)⁴⁾[그림 1], 캐비닛(Cabinet), 테이블(Table), 사이드보드(Sideboard), 카우치(Couch), 스툴(Stool), 침대 등을 포함하여 약 400점



[그림 1] 이 넘은 가구를 설계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의자(chair 혹은 armchair)류 만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도면이나 사진 등이 박물관⁵⁾에 소장되어 있거나 제조사에 의해 양산되고 있는 27개의 의자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했다.

3)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맥킨토시 최초의 의자는 지인이었던 데이비드 골드(David Gauld, 1865-1936)를 위한 래더 백 체어(Ladder Back Chair, 1893년)였으나 실물은 물론 도면이 보존되고 있지 않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4) 3-4명이 앉을 수 있는 장의자로 등받이가 높고 무거워 벽난로가 있는 거실에 고정식으로 사용한다. 높은 등받이는 중세시대 건물 내부를 흐르는 찬 공기의 흐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

5) The National Museum of Antiquities of Scotland, Hunterian Art Gallery, Glasgow School of Art

2. 맥킨토시의 생애와 작품세계

2.1. 1기: 활동의 초기 (1891-1900)

활동의 초기에는 허니맨 앤 케피(Honeyman and Keppie)사무실⁶⁾에서 일하며 공모전⁷⁾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건축가로서 그가 수주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1893년 글라스고우 헤럴드 신문사(Glasgow Herald Building, Glasgow, 1893-1895) 증개축공사였다. 이후,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하게 된 글라스고우 미술학교(Glasgow School of Art)건축의 1차 공사(1897-1899)와 평생에 걸친 클라이언트였던 미스 크랜스톤(Miss Catherine Cranston)의 티 룸(Tea Rooms) 중 2개⁸⁾를 포함하여 카날 보트맨 학교(Canal Boatmen's Institute, 1891-1892), 카네기 홀(Carnegie Hall, Glasgow, 1892-1893), 퀸스 크로스 교회(Queen's Cross Church, Glasgow, 1897-1899) 등 다수의 건축, 인테리어, 가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글라스고우 미술학교 건축에는 스코트랜드(Scotland)의 전통적 형태와 신기술을 적절하게 접목한 합리적인 미학의 건축 사례를 실현했고, 크랜스톤을 위한 티 룸의 데코레이션을 위해서는 의자, 스톨, 테이블, 쉼터, 모자걸이 등 다수의 가구를 디자인했다.

한편, 건축가로서의 성공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축가보다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길 원했다. 좋은 디자인은 오직 창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수공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러스킨과 모리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또한 이 시기는 맥킨토시가 그의 아내이자 예술적 동반자인 마가레트를 만날 때이기도 했다.⁹⁾ 마가레트가 구사했던 가늘고 투명한 화법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이했고 이는 맥킨토시 가구의 장식적 요소에 영감을 주었다. 맥킨토시의 삶과 작품은 마가레트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같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2. 2기: 전성기 (1900-1906)

6) 존 허니맨(John Honeyman, 1831-1914)설립. 당시 글라스고우에서 가장 명망을 떨쳤던 건축회사

7) 글라스고우 아트 갤러리(Glasgow Art Galleries, Kelvingrove Park, Glasgow 3, 1891-1892), 맨체스터 공과대학(Manchester Municipal Technical School, Lonon and Oxford Road, Glasgow 41) 등 다수의 공모전 프로젝트에 당선됐다.

8) 부차난 티룸(Miss Cranston's Tea Rooms, Glasgow, 1896-1897)과 아가일 티 룸(Miss Cranston's Tea Rooms, Glasgow, 1898-1899)

9) 맥킨토시, 마가레트 맥도널드, 프란세스 맥도널드(Frances Macdonald), 허버트 맥네어(Herbert McNair)는 더 포(The Four)로 불리며 글라스고우 예술의 선도자 역할을 했다.

당시 신혼이었던 맥킨토시와 마가레트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함께 호흡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2기는 맥킨토시가 건축가라기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가구디자이너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다.

메인스 거리(Mains street, Glasgow, 1899-1900)에 위치한 그들의 신혼집 인테리어와 가구디자인을 시작으로 예술애호가를 위한 집(House for an Art Lover, 1900-1901), 힐 하우스(Hill house, Helensburgh, 1902-1904), 윌로우 티 룸(Willow Tea Rooms, Glasgow, 1903), 하우스힐 인테리어(Hous'hill, Glasgow, 1904-1905), 아가일 티 룸의 더치 키친 인테리어(Dutch kitchen, Miss Cranston's Tea rooms, Glasgow, 1906), 프로렌타인 테라스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리노베이션(Florentine Terrace, Glasgow) 등 주요 작품을 시공했다.

맥킨토시는 빛, 재료, 가구 등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연출했으며, 한 사람의 건축가가 동일한 예술적 모티브를 사용하여 양질의 주거 예술을 창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Kaplan, 1996). 맥킨토시의 디자인은 장식이 건축물을 압도할 정도로 과장되거나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다. 매스(mass)의 자유로운 디자인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또한 우아한 선적인 요소를 현관, 유리 창문, 그리고 실내 가구 등 건축물 곳곳에 부가했다(황보봉, 2002).

2.3. 3기: 위기의 시기 (1906-1914)

글라스고우 미술학교의 서쪽건물을 시공했던 2차 공사(1907-1909)를 비롯해서 크랜스톤 티 룸 중 일부를 증개축 하거나 리노베이션 했다. 글라스고우 미술학교는 동시대의 건축물 중에서는 물론 맥킨토시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서관의 내부는 공간성, 색상, 음영의 처리, 그리고 풍부한 질감의 표현에 의한 모던한 실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차임선, 1996).

1907년 미스 크랜스톤은 인그렘에 있는 티 룸의 지하실과 1층을 모두 사들여 맥킨토시에게 디자인을 의뢰했다. 맥킨토시는 1900년 인그렘 티 룸을 위한 여성용 런치 룸(Ladies lunch room), 당구룸(Billiard room), 흡연실(Smoking room)등을 디자인한 바 있다. 7년 만에 다시 디자인 한 오크 룸(Oak room)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격자무늬의 파티션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파란색 도색의 내부로 어둡고 남성적이었다. 1900년 흰색과 장미문양으로 완성했던 여성용 런치 룸과 대조를 이룬다[그림 2].

글라스고우 미술학교의 완공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완공된 이후 4년 반 동안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맥킨토시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미스 크랜스톤을 위



[그림 2] 1900년 여성용 런치 룸(좌)과 1907년 남성용 오크 룸(우)

한 화이트 코캐이드 티 룸(White Cocade Tea Room for Miss Cranston)을 글라스고우 스코티쉬 박람회(Glasgow's Scottish National Exhibition, 1911)에 출품한 바 있지만 상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비평가들의 관심은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표됐던 진보적인 건축물로 옮겨갔으며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던 후배 건축가들마저도 그의 작품을 매력적이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양식으로 평가했다.

24. 4기: 부르주아에서 보헤미안으로 (1914-1923)

맥킨토시 부부는 1915년 8월 런던(London)의 첼시(Chelsea)로 이주해 8년간 생활했다. 1916년 바세트-로크 주택 인테리어(Wenman T. Basset-Lowke, Northampton, 1916-1917)와 가구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힐 하우스의 감각적인 조형미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전성기 때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부족했다. 맥킨토시는 기존 건물에 욕실을 추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간을 확장했으며 가구와 기타 실내장식을 전담했다. 게스트 룸[그림 3]에 사용된 줄무늬 벽지, 절제된 기하학적 패턴의 가구, 흰색의 벽 등은 기능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맥킨토시 디자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한편, 인테리어 시공 경험이 풍부한 모더니스트



[그림 3] 게스트 베드룸, 바세트-로크 주택

(Modernist) 바세트-로크는 맥킨토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취향이나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건물은 홀(Hall)과 게스트 룸(Guest room)에는 맥킨토시의 후기 디자인 성향이, 나머지 영역에는 클라이언트의 모더니즘적 성향이 혼합적으로 반영된 건물로 완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런던에서의 미약한 인맥은 맥킨토시가 건축가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고 주변의 화가,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차츰 보헤미안적으로 변해갔다.

3.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시대별 사례

3장에서는 2장에서 분류하고 조사한 시기적 분류에 해당하는 의자디자인의 사례에 대해 서술하겠다.

1기(1891-1900)의 대표작은 글라스고 미술학교를 위한 디렉터 체어(Director's chair for Glasgow School of Art, 1896-1899), 아가일 티 룸을 위한 아가일 체어(Chair for luncheon room of Tea Rooms for Argyle Street, 1898-99), 아가일 티 룸의 흡연실, 당구룸을 위한 체어(Chair for Smoking and Billiards Rooms of Miss Cranston's Argyle Street Tea Rooms, Glasgow, 1897), 잉그램 티 룸을 위한 잉그램 체어(Chair for the White Dining Room and Cloister Room, Ingram Street Tea Rooms, 1900), 메인즈 거리의 맥킨토시 주택을 위한 하이백 체어(High back chair for Mr. and Mrs. Mackintosh, Mains street, 1900), 러그 체어(Lug chair, 1899-1900) 등이다.

2기(1900-1906)의 대표작은 윈디 힐을 위한 홀 체어(Hall chair for Windy Hill, 1901-1901), 투린 국제 박람회를 위한 체어(Chair for Turin International Exhibition of Modern Decorative Art, 1902), 힐 하우스 침실 용 체어(Principal Bedroom chair for the Hill House, 1903), 윌로우 래더백 체어(Ladder back chair for the Willow Tea rooms, 1903), 윌로우 다이닝 체어(Dining chair for the Room de Luxe, Willow Tea Rooms, 1903), 윌로우 암체어(Armchair for Back Salon, Willow Tea Room, 1903), 커브드 래티스 백 체어(Curved lattice back chair for the order desk, the Willow Tea Room), 힐 하우스 데스크 체어(Chair, for the writing desk, The Hill House, Helensburgh Hill House, 1904), 하우스 힐 암체어와 체어(Armchair and chair for Hose'hill, 1905) 등이다.

3기(1906-1914)는 대표작은 잉그램 티 룸을 위한 로우 백 체어(Chair for the Oak Room, Ingram Street Tea Rooms, 1907), 잉그램 암 체어(Armchairs for the Ingram Street Tea rooms. 1907), 잉그램 체어(Chair for Ladies' Restroom, the Ingram Tea Rooms, 1909), 윈저 체어(Winsor chair for the Library, Glasgow School of Art, 1910), 차이나스 룸을 위한 잉그램 체어(Chair for the Chinese Room, Ingram Street Tea Rooms, 1911), 로우 백 체어(Low back chair for Miss Cranston's Ingram Tea Rooms, 1912) 등이다.

4기의 대표작은 바세트 로크 체어(Chair for Basset-Lowke, 78 Derngate, 1916), 윌로우 티 룸을 위한 래더 백 암체어 (Ladder back Armchair for Willow Tea Rooms, Glasgow, 1917), 바세트 로크 주택을 위한 D.S. 3 체어(D.S. 3 Chair)등이다[표 2].

[표 2]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시대별 사례

시기 (연도)	인테리어 프로젝트	가구프로젝트
1기 (1891-1900)	글라스고 미술학교	디렉터의 체어
	아가일 티 룸	아가일 체어 (for luncheon room)
		아가일 체어 (for Smoking and Billiards Rooms)
	인그렘 티 룸	인그렘 체어 (for the White Dining Room and Cloister Room)
	맥킨토시 의 자택	하이 백 체어
러그 체어		
2기 (1900-1906)	윈디 힐	홀 체어
	투린 국제박람회	체어
	힐 하우스	체어(for Principal Bedroom)
		데스크 체어
	월로우 티 룸	래더 백 체어
		다이닝 체어(for the Room de Luxe)
		암 체어
		스툴
커브드 래티스 백 체어		
하우스 힐	암 체어	
3기 (1906-1914)	인그렘 티 룸	로우 백 체어(Chair for the Oak Room)
		암 체어
		인그렘 체어 인그렘 체어 (for the Chinese Room)
	글라스고 미술학교	원저 체어 (for the Library)
4기 (1914-1923)	바세트 로크 주택	바세트 로크 체어 (Chair for Bassette-Lowke) D.S.3 체어
	월로우 티 룸	래더 백 암체어

3.1. 1기 (1891-1900)

글라스고우 미술학교 가구의 대부분은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선의 미묘한 변화로 각각의 개성을 표현했다. 특히 수직선을 강조해 정서적인 우아함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장식적 요소로 사용됐다(Billcliffe, 1990). 글라스고우 미술학교 디렉터를 위한 의자의 등받이에 사용된 9개의 사각형문양은 맥킨토시가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힐하우스 침실의 가구와 장식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됐다[그림 4].



[그림 4] 글라스고우 미술학교의 디렉터의 룸(좌), 도서관(중)과 디렉터의 체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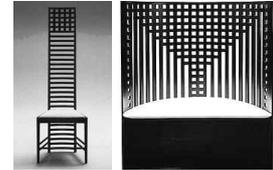
맥킨토시가 디자인했던 최초의 하이 백(high backed)의자이며 프로 디자이너로서 첫 번째 작품이기도 했던 아가일 티 룸을 위한 아가일 체어[그림 5]는 맥킨토시가 추구했던 수공예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동시대에 양산되었던 다른 의자들과 차별화됨은 물론 그의 의자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고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다. 19 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73년 이후 카시나(Cassina)¹⁰⁾에 의해 양산되고 있다.



[그림 5] 아가일 체어

3.2. 2기 (1900-1906)

이 시기에는 가구디자이너로서 맥킨토시 부부의 창의력이 절정을 이뤘다. 오늘날까지 대중에게 가장 알려진 래더 백 체어(Ladder Back Chair)와 커브드 래티스 백 체어(Curved Lattice Back Chair)¹¹⁾[그림 6], 인그렘 체어 시리즈[그림 7]가 이 시기에 디자인됐다.



[그림 6] 래더 백 체어(좌)와 커브드 래티스 백 체어(우)

이 당시 일본 문화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성과 인상성은 영국의 인상주의와 반인상주의 모두에게 도입되어 세기말 아르누보로 연결되는 흐름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민찬홍, 김혜원, 2000). 이는 맥킨토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 일본 건축구조와 조형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건축물과 가구디자인의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했다. 특히 래더 백과 커브드 래티스 백 체어의 등받이는 일본 건축의 격자문양 창틀을 연상시켰다.

미스 크랜스톤으로부터 수주한 세 번째 프로젝트인 인그렘 티 룸의 의자들도 성공적인 사례였다. 맥킨토시의 초기 도면에 의하면 이 의자는 그린(green)색으로 도장할 예정이었으나 다크 브라운(dark brown)으로 제작됐고 이후 흰색으로도 도장되어 자신의 주택에도 사용했다. 하이 백 버전(그림 7의 두 번째 사진)은 1900년에 첫 번째 모델이 제작된 이후 1907년 1909년, 1911년 세 번에 걸쳐 추가 제작됐다. 초기 사양으로부터 56.9cm나 높아진 등받이는 조형적 아름다

10) www.cassina.com

11) 이 두 의자는 카시나에서 양산된 이후 흔히 힐 하우스 체어, 월로우 체어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맥킨토시가 제작도면에 명명한대로 래더 백 체어와 커브드 래티스 백 체어로 표기했다.

움대신 실용적이지 못한 불편함이 있었으나 등받이가 표출하는 강인한 시각적 효과는 공간에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충분했고 맥킨토시 디자인의 특징을 각인시키는데도 주요했다. 이후 1912년 클로이스터 룸을 위해 등받이 낮은 사양을 다시 디자인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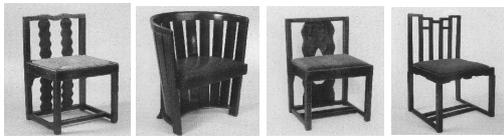


[그림 7] 등받이 높이와 마감색상을 변형시킨 인그렘 체어의 다양한 버전

이 시기에 디자인 된 의자의 등받이는 몸을 기댈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오브제로 존재했다. 또한 의자가 균집을 이루고 있을 때는 높은 등받이로 인해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를 차단하여 별다른 건축적 장치 없이 공간을 감성적으로 분할했다. 맥킨토시는, 가구는 기능을 가진 동시에 전시품임을, 특히 실용적인 것 보다는 시각적 기능을 가진 것임을 자주 강조했다. 그는 가구디자인을 통해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예술작품으로서의 가구,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조각으로서의 개념을 가구에 부여했다(김문덕, 1990).

3.3. 3기, 1906-1914

이 당시 맥킨토시의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프로젝트는 1907년과 1910년 두 번에 걸친 인그렘 티 룸 디자인과 글라스고우 미술학교 2차 공사였다. 인그렘 티 룸의 오크 룸(Oak Room)과 남성용 휴게실(흔히 Chinese Room이라 불렀음)을 위해 인그렘 체어 시리즈를 디자인했고[그림 8], 글라스고우 도서관을 위해



[그림 8] 인그렘 티 룸을 위한 의자들

서는 전통적인 원저 체어를 재해석한 의자를 디자인했다[그림 9]. 인그렘 티 룸 의자 등받이의 장식적인 요소는 공간의 벽체 및 창문과 어울리는 시각적 재미를 주면서 남성용 휴게실과 오크 룸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일본에 못지않은 중국 모티브의 영향도 이 당시 맥킨토시 디자인에 잘 나타났는데, 그 중 남성용 휴게실은 차이나니스 룸이라 불릴 정도였다. 중국의



[그림 9] 원저체어

모티브를 활용한 파란색 격자 스크린을 파티션과 의자 등받이에 동시에 활용하여 공간 전체에 통일감을 주었다. 그러나 낮은 등받이와 둔탁해진 패턴에서 1, 2기에 존재했던 감각적이고 섬세한 맥킨토시 특유의 조형 언어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었다. 1908년 힐 하우스를 위해 디자인했던 테이블의 하부구조[그림 10]에 그나마 2기의 디자인에서 나타났던 리듬감 있는 격자패턴이 재현됐을 뿐이었다.



[그림 10] 힐 하우스를 위한 테이블

3.4. 4기 (1914-1923)

이 당시 맥킨토시 디자인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실내공간에 밝게 두드러진 색상의 가구를 대비시키는 것이었다. 바세트-로크 주택의 세틀에서처럼 이전의 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삼원색이 나타났다. 1916년 맥킨토시는 바세트-로크 주택을 위해 격자형 등받이 의자(그림 11의 좌)를 디자인했으며 1918년에는 실질적인 마지막 가구작품인 D.S. 3 체어를 디자인했다. 격자형 모티브의 활용과 호두나무로 상감된 4개의 사각형 문양 등을 통해 힐 하우스 의자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재현했다.



[그림 11] 바세트-로크 체어(좌), D.S. 3 체어(우)

4. 결론: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특성

1896년 디렉터 체어부터 1918년 D.S. 3 체어까지 도면이 남아있거나 양산되고 있는 맥킨토시 의자 27개를 시대별로 정리한 후 각각의 형태, 재료, 크기를 조사했다[표 3]. 건축가로서 삶과 마찬가지로 그는 가구디자이너로서도 1기와 2기에 가장 성공적인 작품을 남겼다. 이 두 시기에 디자인되었거나 제작되었던 의자들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활용될 만큼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의자디자인의 특성을 조형적, 구조적,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형적으로는 모더니즘의 기하학적 조형과 아르누보의 유기적인 장식이 공존하고 있다. 가구전체의 조형 및 등받이의 패턴에서는 수직 수평선과 질서 있는 격자문양으로 절제된 미학을 표출하는 동시에 의자의 부분 디테일이나 패브릭에는 자연의 형태

[표 3]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사례와 분석

1기 (1891-1900)						
	작품명(연도) 제조사	사진 (도면)	디자인 개요	작품내용 및 분석		
				형태	디자인 특성	
1	디렉터의 체어, 글라스고 미술학교 (Director's chair, Glasgow School of Art, 1896-1899)		글라스고 미술학교 디렉터를 위한 의자. 이 의자는 이후 1903년 힐 하우스 베드룸과 1905년 윈디 힐 주택에도 사용됐다.	형태	남성적이고 중후한 의자. 등받이에 새겨진 9개의 사각형 문양은 맥킨토시 디자인의 상징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 좌판: 말털	
				크기	81.5 x 58.5 x 52 cm	
2	아가일 체어 (Chair for luncheon room, Argyle Tea Rooms, 1897)		맥킨토시 최초의 하이 백 의자이며 프로 디자이너로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의 의자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고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래 아가일 티 룸을 위해 디자인했고 이후 자신 주택의 식당에도 사용했다.	형태	맥킨토시가 추구했던 예술 공예적 개념이 의자디자인의 조형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등받이 형태는 기능적이라기보다는 티 룸의 공간적 성격을 규정짓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말털	
				크기	136 x 50.5 x 45.7 cm	
3	아가일 티 룸을 위한 체어 (Chair for Smoking & Billiards Rooms, Argyle Tea Rooms, 1897)		아가일 티 룸을 위한 의자. 맥킨토시 스스로 제작한 의자로서 그의 개인주택 스튜디오와 헌터리안 아트 갤러리(Hunterian Art Gallery)에 소장되어 있다.	형태	사과의 외형 혹은 통통한 사람의 엉덩이를 연상시키는 좌판이 특징이다. 원래 도면에는 등받이가 현재보다 15cm 높게 계획되었다.	
				재료	참나무에 도장	
				크기	84.0 x 63.0 x 46.0 cm	
4	인그렘 체어 (Chair for White Dining Room & Cloister Room, Ingram Tea Rooms ,1900)		미스 크랜스톤의 인그렘 티 룸의 흰색 다이닝 룸을 위한 디자인. 이후 클로이스터 룸을 위해 등받이가 낮은 버전을 다시 제작했다.	형태	힐 하우스를 위한 의자에 비해 좀 더 정형화되고 우아해진 등받이 디자인. 이후 하이 백 버전, 흰색 버전 등으로 발전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 좌판: 말털	
				크기	95 x 47 x 44.5 cm	
5	하이백 체어 (High back chair for Mackintoshes', Main street, 1900)		인그렘 체어의 하이 백 버전. 1900년도에 첫 번째 모델이 제작되었고 이후 1907년 1909년, 1911년 세 번에 걸쳐 추가 제작됐다. 이후 흰색으로 도색하여 메인즈 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도 사용했다.(아래 6번 의자)	형태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인 긴 등받이는 조형적 아름다움대신 실용적이지 못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의 강인한 시각적 효과는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충분했고 맥킨토시 디자인의 특징을 각인시키는데도 주요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 좌판: 말털	
				크기	151.9 x 47 x 44.5 cm	
6	하이백 체어 (High back chair for Mackintoshes', Main street, 1900)		원래는 인그렘 티 룸을 위해 디자인 한 의자의 흰색 버전. 사진에 보이는 흰색 데스크와 셋트를 이루고 있다. 마가레트와 자신을 위해 디자인한 메인가의 주택 서재에 소장되어 있다.	형태	5번과 동일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 좌판: 말털	
				크기	151.9 x 47 x 44.5 cm	
7	러그 체어 (Lug chair,1900)		맥킨토시 자신의 주택을 위해 디자인한 의자. 전면에 보이는 원통형의 팔걸이의 형태와 러그와 유사한 재질의 마감재 때문에 러그체어로 불린다.	형태	전통적인 의자 형태에 기초한 박스형 의자. 사용자의 몸을 충분히 감싸주므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은신처의 역할을 한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리넨	
				크기	131 x 74 x 72 cm	

2기 (1900-1906)

8	윈디 힐 (Hall chair, Windy Hill, 1901)		윈디 힐 주택의 홀(hall)을 위한 디자인으로 높은 등받이는 다수의 손님이 다이닝 홀에 앉게 될 경우 복도로부터 공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형태	안정적 구조와 조각작품과도 같은 등받이 조형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골풀
				크기	133.7 x 73.2 x 54.5 cm
9	투린 국제 박람회 (Turin International Exhibition of Modern Decorative Art, 1902)		투린 국제 박람회의 'Rose Boudoir'를 위해 부인 마가레트와 함께 디자인한 의자. 기능적이기 보다는 장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형태	상징적, 여성적인 미와 장식적 디테일이 돋보인다. 등받이는 장미를 모티브로 스텐실한 후 조각했으며 색상은 장미를 연상시켰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흰색도장 등받이: 캔버스에 스텐실 좌판: 실크 업홀스터리
				크기	152.5 x 68 x 56.2 cm
10	래더 백 체어 (Ladder back chair for Principal Bedroom, Hill House, 1903)		맥킨토시가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어 좌판의 하부에 그의 사인이 새겨져 있다. 힐 하우스의 흰색 베드룸에 놓여있던 유일한 검은색 가구이다.	형태	기능적이기 보다는 조각적인 의자.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마감된 실내공간에서 조각품과도 같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조형과 색채를 표출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지정 색상 패브릭
				크기	140 x 41 x 35 cm
11	윌로우 래더백 체어 (Ladderback chair, Willow tea rooms, 1903)		윌로우 티 룸의 지상층에 위치한 갤러리와 살롱을 위한 의자. 윌로우 티 룸 디자인은 2년 전 윈디 힐 주택을 위해 그가 디자인한 의자 디자인보다 현대적이고 성공적이었다. 이후 등받이를 가로지르는 부재를 추가하여 등받이의 구조를 보강했다.	형태	전통적인 의자의 형태를 재현하면서도 이를 단순화시켜 새로운 20세기 가구디자인의 아이콘으로 탄생시켰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 좌판: 골풀
				크기	104.8 x 45.5 x 41.2 cm
12	윌로우 다이닝 체어 (Dining chair for Room de Luxe, Willow Tea Rooms, 1903)		이 의자가 사용된 룸 드룩스는 중앙에 화려한 샹드리에가 걸려있고 유리화 화려한 몰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이 방을 위한 모든 가구는 은색도장에 보라색 벨벳으로 좌판과 등받이를 마감했다.	형태	화려한 실내공간에 어울리는 유연하고 여성적인 형태와 보라색 벨벳 마감이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출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은색도장 좌판: 보라색 벨벳 업홀스터리
				크기	103 x 54 x 44 cm
13	윌로우 암체어 (Armchair for Back Salon, Willow Tea Room, 1903)		윌로우 티 하우스의 지상층 살롱과 갤러리, 흡연실에 사용됐다.	형태	정사각형 형태의 둔탁하고 낮은 이 의자는 등받이가 길고 날씬한 다른 의자와 상대적으로 대비되어 공간을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말털
				크기	72.8 x 55.3 x 45.4 cm
14	윌로우 스툴 (Waitress Stool, Willow Tea Room, 1903)		윌로우 티 하우스 여성종업원을 위해 제작된 의자. 5년 뒤 맥킨토시는 이 의자를 기본형으로 한 디자인을 발전시켜 힐 하우스의 테이블과 함께 사용했다.	형태	좌판하부에 기하학적 모티브를 접목하여 구조적인 문제와 조형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말털
				크기	63.5 x 45.6 x 45.2 cm
15	커브드 래티스 백 체어 (Curved lattice back chair for the order desk, the Willow Tea Room)		맥킨토시의 가장 성공적인 의자디자인중의 하나. 윌로우 티 룸의 1층에 놓여 흰색 살롱과 어두운 방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데 사용됐다.	형태	일본조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 중의 하나로 곡면형 등받이에 기하학적인 격자문양이 새겨진 획기적인 의자. 세로로 이어지는 패턴은 버드나무 숲 속을 연상시킨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 좌판: 말털 업홀스터리
				크기	118.9 x 94 x 41 cm

16	힐 하우스 데스크 체어 (Chair, The Hill House, 1904)		힐 하우스의 클라이언트인 월터 블랙키(Walter Blackie)의 책상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맥킨토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용하던 기존의 의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외형상 유사하게 제작했다.	형태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이 의자는 침실에 사용된 하이 백 의자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이었다.
				재료	프레임: 목재에 도장마감 좌판: 업홀스터리
				크기	111 x 40.6 x 42 cm
17	체어 (Chair for Bedroom, Hous' Hill, 1904)		맥킨토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의 한명인 미스 크랜스톤의 주택의 침실에 포인트를 주기위한 의자였다.	형태	특유의 격자문양을 등받이와 좌판 전면에 도입했다.
				재료	프레임: 단풍나무에 도장 좌판: 업홀스터리
				크기	68.3 x 41.8 x 34.5 cm
18	하우스 힐 암체어와 체어 (Armchair & Chair, Hous' Hill 1905)		하우스 힐 2층의 드로잉 룸을 위한 의자. 이 의자는 흰색패널로 이루어진 커브 스크린의 앞 쪽에 놓였다. 1933년 화재로 소실됐다.	형태	가늘고 유기적인 패턴의 등받이 디자인. 등받이 상부를 가로로 지나가는 판재에는 4개의 연자쫓빛 유리가 삽입되어 있다. 좌판의 하부구조에는 수평으로 지나가는 4개의 패널이 지면에 닿을 듯 낮게 위치한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 좌판: 업홀스터리
				크기	119.5 x 41.8 x 34.5 cm
3기 (1906-1914)					
19	로우 백 체어 (Chair for the Oak Room, Ingram Street Tea Rooms, 1907)		등받이가 낮은 이 의자는 인그램 티 하우스의 오크 룸(Oak room)에 사용되었다.	형태	1, 2기에 비해 낮아진 등받이와 둔탁해진 패턴으로 변화된 조형을 볼 수 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골풀
				크기	74 x 40.6 x 35 cm
20	인그램 암 체어 (Armchairs for the Ingram Street Tea rooms, 1907)		흔히 배럴 체어라고도 불린다. 도미노 게임 테이블과 함께 사용됐다.	형태	커브로 된 등받이에 수직적 격자문양이라는 힐 하우스 의자와 동일한 조형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마감 좌판: 가죽
				크기	77.4 x 58.5 x 41.5 cm
21	인그램 체어 (Chair, Ladies Rest Room, Ingram Tea Rooms), 1909)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 디자인된 여성용 휴게실과 오크 룸을 위한 의자. 이후 1911년 Glasgow International Exhibition에 전시되기도 했다.	형태	이 의자 등받이의 장식적인 요소는 공간과 어우러지는 시각적 재미를 위한 것이었다. 등받이의 패턴은 여성용 휴게실과 오크 룸의 벽체와 창문에 특정한 이미지를 심어줬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도장 좌판: 골풀
				크기	72 x 40.6 x 34.5cm
22	윈저 체어 (Winsor Chair for Library, Glasgow School of Art, 1910)		전통적인 윈저체어를 재해석해서 디자인했다. 글라스고우 도서관에 사용됐다.	형태	윈저체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초기 디자인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추후 보강했다.
				재료	프레임: 느릅 혹은 자작나무
				크기	66.6 x 50.5 x 44.5 cm
23	인그램 체어 (Chair, Chinese Room, Ingram Tea Rooms, 1911)		인그램 티 하우스의 차이니스 룸을 위한 의자. 차이니스 룸은 티 하우스 전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공간이었다. 공간에 사용된 파란색 격자 스크린을 이 의자의 등받이 패턴에 연결하여 사용했다.	형태	등받이 목재위의 패턴과 좌판 하부의 구조 전면부와 후면부에 중국 스타일의 디테일을 모사했다.
				재료	프레임: 소나무에 도장 좌판: 말털
				크기	82.4 x 43.8 x 40.7cm

24	로우 백 체어 (Low back chair, Ingram Tea Rooms, 1912)		1900년 인그램 티 하우스를 위해 디자인했던 하이 백 의자를 1912년 콜로니스터 룸을 위해 등받이를 낮게 변형하여 다시 디자인했다.	형태	낮아진 등받이로 인해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와 도장 좌판: 업홀스터리
				크기	84 x 47 x 44.5 cm
4기(1914-1923)					
25	체어 (Chair, Bassette-Lowke, 1916)		이 의자는 바세트-로우트 주택 복도에 역시 그가 디자인했던 셋들(Settle)과 함께 사용됐다.	형태	전체적으로는 남성용 휴게실의 실내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격자문양의 등받이로 이루어졌다.
				재료	프레임: 목재에 도장마감 좌판: 목재출기
				크기	110.5 x 45.7 45.7 cm
26	래더 백 암체어 (Ladderback armchair, Willow Tea Rooms, Glasgow 1917)		윌로우 티 하우스 지하실 인테리어는 맥킨토시가 글라스고우에서 실행했던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맥킨토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에 부분적으로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극적인 인테리어 효과를 연출했다.	형태	다소 극적인 인테리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단순하고 담백한 형태와 색채로 마감됐다.
				재료	프레임: 참나무에 목재마감 좌판: 말털
				크기	81.5 x 52 x 42.2cm
27	D.S. 3 체어(D.S. 3 Chair, 1918)		마지막 가구 프로젝트였던 이 의자는 맥킨토시 사후에 제작됐다. 바세트-로크의 캔디다 산장을 위해 디자인됐다. 전성기의 의자조형을 재현해보려는 의지가 보인다. 현재 카시나에서 양산되고 있다.	형태	격자형 정방체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조형과 등받이의 격자무늬, 호두나무로 상감된 4개의 문양에서 힐 하우스 래더 백 체어의 조형성을 재현했다.
				재료	프레임: 애쉬우드엔 검은색 도장, 호두나무 상감 좌판: 식물출기
				크기	75 x 49 x 45 cm

로부터 도출한 섬세하고 여성적이며 상징적인 요소를 사용했다. 이는 당시 디자이너를 지배하던 유럽의 양식과 차별화된 스코트랜드의 지역성과 중국, 일본의 조형적 영향이 적절하게 접목된 결과이기도 했다. 한편 맥킨토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특유의 조형적 특징은 전성기였던 1, 2기의 의자에서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3, 4기의 의자에서는 취약하게 보여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길고 좁은 등받이와 복잡하고 섬세한 패턴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했으며 편하게 앉기 위한 의자 본래의 목적에도 부적합했다. 다수의 의자가 초기모델 이후 구조적 보완이 불가피했고 양산에도 적합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 사례로 조사한 27개의 의자 중에서 등받이 길이가 1m가 넘는 의자는 절반에 가까운 13개이며, 이 중에서 12개가 1기와 2기에 디자인됐다.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던 등받이가 긴 의자들은 당시에는 대중화에 실패했지만 1973년 이후 카시나에 의해 양산되면서, 길고 높은 등받이는 맥킨토시 디자인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모리스와 러

스킨의 영향을 받은 맥킨토시가 추구했던 수공예적 가구작품의 제작과 대중화라는 이상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70년 만에 그 한계를 넘어섰다.

셋째, 기능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는 실내디자인 요소의 일부처럼 가구가 공간을 분리하거나 통제했다. 수직선을 강조한 개성이 강한 조형의 의자는 불필요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와는 또 다른 조형적 가치를 발했다. 마치 실내디자인의 일부인 양 공간과 어우러졌으며 이는 가구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원활하게 통제하고자 했던 맥킨토시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는 의자가 앉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예술품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조각 작품과도 같은 그의 가구조형으로 인해 그의 가구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작품으로 평가됐고, 실내공간에서 가구의 역할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그의 가구는 가구가 놓인 공간의 형태와 구조를 반영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보다는 공간 속에서 조합되었을 때 그 조형적 가치를 발했다[표 4].

[표 4] 맥킨토시 의자디자인의 특징

분류		특징
조형	전체적 조형 및 등받이 패턴	기하학적 모더니즘 격자문양
	장식 및 패브릭패턴	유기적, 장식적, 아르누보 양식
구조		길고 좁은 등받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안정
기능	실내디자인 요소	파티션, 벽체 등 공간을 분리하고 통제하는 역할
	조각품	앉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역할

5. 요약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맥킨토시의 가구디자인 중에서 양산이 되었거나 문헌을 통해 자료가 남아 있는 27개의 의자디자인 사례를 크로포드의 분류에 따라 4개의 시대별로 분류한 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했다. 맥킨토시의 의자에는 기하학적인 조형과 유기적인 장식이 공존했으며,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했고 양산성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그 한계를 넘어섰으며 기능적으로는 실내디자인의 요소로, 예술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기능성과 예술성이 동시에 추구됐다.

언제나 예술가로서 인식되길 바랐던 그의 철학은 당시 범람하던 조악한 양산가구들 사이에서 굳게일과도 같은 가구조형의 탄생으로 실현됐다. 그는 건축, 실내디자인, 가구 및 조명,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을 위한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종합예술가였다. 이러한 그가 적합한 클라이언트를 찾기는 쉽지 않았으며 끝내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된 그가 화가로 전향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예술의 대중화, 수공예적 가치의 존중, 건축과 디자인을 종합예술로 접근하려는 시도 등은 맥킨토시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사상이었다. 기계생산과 수공예, 순수미술과 상업미술,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넘어 디자인과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유토피안적인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던 맥킨토시의 욕망과 이상은 진보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역사 속에서 반복됐다. 이는 20세기 디자인사를 가로지르는 사상적 뿌리였으며 오늘날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역할이 다양하게 복합화 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맥킨토시의 의자디자인에 대한 사례를 조명해 본 것으로 추후 이어질 수 있는 심층적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덕.(1990). 찰스 레니 맥킨토시: 재조명되어야 할 디자인의 보고, 'pid', 11월, 195-196.
- 민찬홍, 김혜원.(2000). 20세기 초 가구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근대화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호, 122.
- 차임선.(1996). 찰스 르네 맥킨토시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논, 6.
- 황보봉.(2000). 아르누보 건축의 역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3.
- Billcliffe, R. (1990). Mackintosh Furniture, Dumfriesshire(UK): Carmen and Hollis, 23-27.
- Crawford, A. (2002). Charles Rennie Mackintosh, Thames and Hudson, 5.
- Kaplan, W. (1996). Charles Rennie Mackintosh, NY: Glasgow Museum Press, 177-180.
- www.achome.co.uk/pictorial/mackintosh.htm
- www.cassina.com
- www.crmsociety.com
- www.hunterian.gla.ac.uk